

2013 12.29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축일

제 1 독서 : 집회서 3,2-6. 12-14 < 주님을 경외하는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

제 2 독서 : 콜로새서 3,12-21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 생활.>

복 음 : 마태오 2,13-15.19-23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미사오시기 전에 제 1 독서, 제 2 독서와 복음, 그리고 묵상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묵상에 보면 좋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성가정이라 부르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우리 한가운데에 모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명하며 살아간다면 성가정이 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사전 속죄의 전례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생활을 돌아 보시며 묵상을 하시라” 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사십니까? 그리고 내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잡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명 하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두셨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바로 이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살펴 보십시오. 거기에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 1 독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종합비타민과 같다고 하십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건강과 장수를 그 선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 하면 그것은 보험에 드는 것과 같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고도 하십니다. “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 하는날 받아들여진다.” 고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총무님의 가정을 보면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두시고 그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 2 독서를 잘 읽어 보십시오. 바오로사도의 이 말씀으로 한달이상 피정을 하여도 모자랄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각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지를 잘 말씀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분열 되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이유는 서로가 모여, 남 얘기를 즐겨 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데에 있습니다. 누가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준다면 그런 공동체는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 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각 개개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서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실수를 웃음으로 넘겨 버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골프를 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한 형제님은 에헤야 디야~~ 하시며 분위기를 풀어 주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실수를 이렇게 감싸주고 인내하여 준다면, 그리고 서로 용서하여 준다면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한쪽귀로 들어서 한쪽귀로 흘려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험담하거들랑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 에헤야 디야~~ 하시며 흘려 버리십시오. 마음과 정신에 하느님의 온유와 인내를 입어, 남의 모욕과 질투에 욕을 하지마시고, 바로 그순간에 에헤야 디야~~ 하시면서 그렇게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흘려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신도 어떤때는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이제는 화가 나기 보다는 그런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없는 얘기 만들어서 험담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사도바오로께서는 또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남편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아내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들이 순종 할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 자신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혔을 때에야 가능 한것입니다.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단물은 다 빠져 버리고 쓴물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보약은 쓴물입니다. 진짜 보약은 입에 씹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쓴물입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봅니다. 어떨때는 그냥 속된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일정도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어머니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식들은 전혀 그 어머니의 희생도 모르고 또한 전혀 고마워 하지 않는데도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며, 제 자신도 이해를 할수 없지만, 어머니들이 피를 흘리며 계속 내어주고, 끊임없이 쏟아붓는 그 사랑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되돌아 봅니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예수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즈카리아와는 달리 천사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꿈에 본 천사의 말을 따라 길고 긴 여행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 옵니다. 요셉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천사가 꿈에 일러 주는대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사는 성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

2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3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4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5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6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12 애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13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14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

형제 여러분, 12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13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17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18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19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20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21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15.19-23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9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23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